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동역자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저희들과 늘 함께 달려오신 사랑하고 존귀한 기도의 동역자 한분 한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이곳은 매일 40도가 넘어가는 기온과 밖에 나오면 숨을 못 쉴 정도로 뜨겁고 더운 열기가 매일 지속되는 가운데도 생명을 살리려는 사역은 3월과 4월에도 지속되었습니다.

숨을 막히게 하는 뜨거운 날씨 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은 순간순간 군경찰에 검문을 당해서 잡히게 되면 감옥에 가거나, 이곳에서 영원히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떨림이 더욱 숨을 조이게 합니다.

한 밤중에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매번마다 차를 대기하고 사람들을 기다리는 순간순간은 초조함과 두려움의 극치를 달하게 합니다.

그때에 앞쪽에서 차량이나 오토바이 불빛만 보여도 조바심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자리를 빨리 떠나, 다시 자리를 잡고 숨어 있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자주 접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순간순간의 이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이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이 순간에도 그 어떤 힘겨운 상황에서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지명하여 불러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로 센터에 데려온 그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즉 하나님께 돌아온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저의 고통은 아주 작은 신음 소리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육과정을 거쳐 조금씩 변화되는 믿음의 고백들을 바라볼마다 감사의 눈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번 출장에도 저희 HIMHOUSE 히브리센타 4기들을 데려왔습니다. 여자 7명과 남자 1명입니다. 이제 들어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지난 4월 구출팀이 구출도중 중국에서 잡혀 1년여 동안을 감옥에 있다가 다시 구출팀에 의해 오게된 자매와 형제가 있습니다. 처음 형제가 중국 공안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복송 되어 죽는 것보다 감옥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벽에 이마를 쳐서 죽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형제는 1년여 동안을 감옥에 있으며 복송이 된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며 밤마다 잠을 2-3시간 자면서 입술도 터져 부르터 있습니다. 입맛을 잃어버려 밥도 조금씩 겨우 먹고 있으며 중국의 감옥에 있었던 고통의 트라우마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가 그 형제안에서 넘쳐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4기생들은 4월에서 6월까지 훈련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시각과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열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번 교육 과정 속에서도 강하게 임재 동행하는 역사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2년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미국으로 보낸 아이들 하진, 문철, 봉철이를 기억하시는지요?

세명은 모두 지금 미국에서 잘 적응하면서 직장 생활도 잘 하고 모두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봉철이는 현재 미국의 전기차 조립하는 파트에서 성실에게 일하면서 교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부부를 만나기 위해 태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쉐 터에서 2주동안 봉사도 하고 아버지에게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미국에서 봉철이가 이렇게 고백했던 이 신앙고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그들의 영혼과 생명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주실
그분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와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시민권자로 이곳을 방문한 봉철이는 자신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태국의 이민국 감
옥을 가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기념 사진도 찍고, 다시한번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는 감사의 시간들
이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꽃제비로 살아가던 우리 봉철이가 미국의 시민권
과 직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봉철이 마음속에는 미국의 시민이 되는 것 보다 더
큰 기적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것이라고 믿는
신앙 고백, 그 고백이 봉철이를 살아가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라고 믿습
니다



HIM HOUSE 히브리 센타 3기생들 10명은 지난해 12월 말경부터 올해 1월 초에 와서 3월 말경까
지 석 달의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들 모두 주님을 영접하고 그 신앙고백으로 이곳에서 세례를 받
기 위해서 이민국으로 들어가 전에 모두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훈련 받고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기 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
성이 되어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국 들어가기 전에 이민국 안에서 전화 통
화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연락을 할 수가 있어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서도 성경을 보며, 밥을 먹을 때 마다 식사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려고 하며 양육 받은 자의 모
습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3기생들이 한국에 들어가서도 신앙 생활을 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안에서 동역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태국에서 선교사 장하진, 김하은